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2 호

2019 년 4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제1기 UNGC CSR Academy 안내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회원사 사용 안내
3.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션 초청
4. <부산·울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5)
5. <대구·경북>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6)
6.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3/29), <교통·물류·운송>(4/12) 간담회 결과공유
7.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Youth Forum 2019' 참관기 (3/16-17)

■ 본부 소식

1.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다 – SDGs를 위한 재정적 기회
2. 유엔글로벌콤팩트 신규 웹사이트 소개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2. [SDGs 솔루션] 드론을 이용한 해충 예방
3. [Global Goals in Action] 힐튼(Hilton)
4. [Goal 9, 10,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UNGC 회원 뉴스

1. LG화학, '글로벌 그린본드' 1조8천억 발행 성공
2. 포스코 현대제철, '미세먼지 주범' 오명 벗기 위해 대규모 투자
3. 남부발전, 중소기업과 양방향 소통으로 동반성장 구현

■ CSR 뉴스

1. (사회책임)"성평등이 경쟁력이다"...'여성역량강화원칙' 도입 서둘러야
2. ILO 비준 압박 나선 EU..."韓, 국제사회 구성원 책임 다해야"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제1기 UNGC CSR Academy 안내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제 1기 UNGC CSR Academy 운영 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 신규 담당자 및 CSR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 1기 <UNG C S R Academy> 참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카데미 수업을 통한 기대사항

- 글로벌 기준인 UNGC 10대 원칙 및 최근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파악
- UNGC 본부/한국협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CSR 역량강화 기회 확보
- UNGC 회원 기업 간의 우수 사례 공유, 네트워킹 플랫폼 참여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2019년 5월~6월 (총 3회, 6개 세션)
- 장 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주 제: UNGC&SDGs,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 참가비: 10만원 (석식 제공)
- 등록방법: 참석신청서 기입 후 이메일 회신(gckorea@globalcompact.kr)
※ 4개 세션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프로그램 구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차: 5월 10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세션 1	14:00 - 14:15	'15	인사말 및 소개
	14:15 - 14:45	'30	UNG C S R 개요
	14:45 - 15:15	'30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15:15 - 15:30	'15	Q&A 및 휴식
UNG C S R & SDGs	15:30 - 16:00	'30	SDGs와 비즈니스 전략 - SDGs Compass
세션 2	16:00 - 17:00	'60	SDGs 응용하기 (그룹활동)
	17:00 - 17:30	'30	그룹발표
	17:30 - 17:45	'15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2차: 5월 24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인권·노동 공급망 환경	14:00 - 14:40	'40 국내외 기업과 인권 동향 및 사례	
	세션 1	14:40 - 15:00	'20 인권경영 실사 가이드 (공급망 관리) - UNGC 인권경영 가이드북
		15:00 - 15:30	'30 인권경영 자가진단 결과 공유
		15:30 - 15:45	'15 Q&A 및 휴식
		15:45 - 16:25	'40 기후 변화 동향 및 기업의 기후 행동
	세션 2	16:25 - 17:15	'50 UNGC 회원사 사례 발표
		17:15 - 17:45	'30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3차: 6월 14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반부패 ESG	14:00 - 14:30	'30 국내외 반부패 동향 소개	
	세션 1	14:30 - 15:10	'40 기업 반부패 시스템 소개 Red Flag 파악 및 대응
		15:10 - 15:45	'35 기업 반부패 시스템 자가진단 결과 공유
		15:45 - 16:00	'15 Q&A 및 휴식
		16:00 - 16:40	'40 UNGC 회원사 사례 발표
	세션 2	16:40 - 17:30	'50 ESG 공시 및 Business Reporting의 중요성
		17:30 - 17:45	'15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운받기\]](#)

[\[참석 신청서 다운받기\]](#)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회원사 사용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 시스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는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별 자료 및 행사소식 통합·분류를 통한 효율적 정보 접근
- 회원사 아이디 제공 및 로그인 기능 추가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및 가독성 제고, 자료 다운로드, 1:1 문의 기능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원사 여러분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및 SDGs에 대한 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4월 22일(월) 이후부터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로그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 아이디: ungnk_회원사명
- 비밀번호: 이메일 수령 후 개인설정

Tier선택을 완료한 회원사 부터 순차적으로 메일이 송부될 예정이오니, 원활한 로그인 정보 제공을 위해 조속한 선택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02-749-2149)



협회 발간자료 다운로드
다양한 톨·가이드라인·본부 발간물 번역자료·
회원사 서베이 등 주요 선별자료 온라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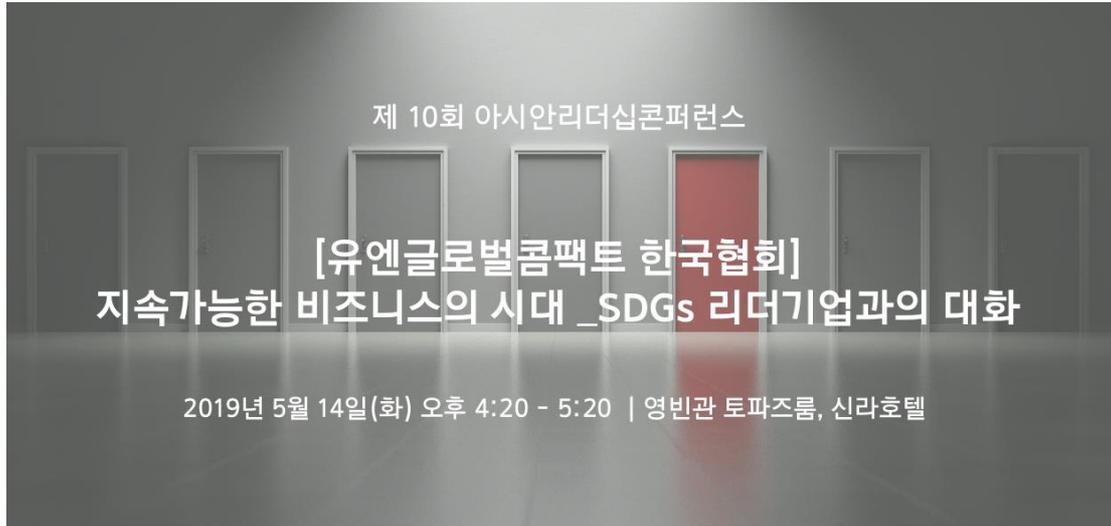
온라인 1:1 커뮤니케이션

회원사가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하여 문의·요청사항을 언제든지
지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참여 활성화



[\[원문보기\]](#)

3.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션 초청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를 모토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있어 SDGs는 이제 세계 공용어로서
 기업의 미래와 장기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SDGs 연계와 이행은 필수입니다."

본 세션은 SDGs 달성을 위해 UN 차원에서 제시하는 기업 시민의 참여 방안을 알아보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SDGs 를 기업 전략 및 정책에 내재화 시키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앞서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 성장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행사 개요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4:20 - 5:20 영빈관 토포즈룸, 신라호텔(TBD)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선일보 |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참가비: 무료)

시간		프로그램
16:20 - 16:22	2'	오프닝 및 스피커 소개 - 좌장: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6:22 - 16:37	15'	발표 1: SDGs 글로벌동향 및 기업 참여의 중요성 - 릴라 카르바시(Lila Karbassi),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총괄
16:37 - 17:07	30'	발표 2.: 기업의 SDGs 이행사례_1 - 카나코 후쿠다(Kanako FUKUDA),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발표 3: 기업의 SDGs 이행사례_2 - KT(TBD)
17:07 - 17:20	13'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패널: 릴라 카르바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총괄 - 패널: 카나코 후쿠다,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 선착순 마감



릴라 카르바시(Lila Karbassi),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총괄

릴라 카바시(Lila Karbassi) 프로그램 총괄은 유엔의 세대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다. 2005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합류한 그녀는 'Rio+20 기업지속가능성포럼(Rio+20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을 담당했으며, '기후를 위한 배려 이니셔티브(Caring for Climate initiative)' 창립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합류 전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제약업계에서 수년 간 근무했다. 프랑스의 그르노블 대학교(University of Grenoble)에서 생물학 석,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탈리아 보코니 경영대학교(Bocconi School of Management)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카나코 후쿠다(Kanako Fukuda),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카나코 후쿠다 (Kanako Fukuda) 이사는 스미토모 화학 CSR 팀의 책임자로 그룹 내에서 SDGs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9개 부서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촉진위원회의 사무국 대표를 맡아왔다. 후쿠다 이사는 2002년부터 폴리머 첨가제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폴리머 첨가제 R&D팀에 있을 때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신기술이 SDGs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협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후쿠다 이사는 유기화학 학사를 수료했으며, 2016년부터 일본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SDGs 이해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 초청장은 해당 세션에만 적용됩니다(오찬 및 이외 세션 제외)

[\[초청장 다운받기\]](#)

[\[신청 바로가기\]](#)

[\[원문보기\]](#)

4. <부산·울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5)



글로벌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부산·울산 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및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준강화
 사회적책임투자(C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차적 기준을 윤리경영, 성평등, 환경, 협력, 근로자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적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 해택 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부산·울산 소재의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기존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주최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부산상공회의소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14:00 - 17:30

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 (연산동 본원)

대상: 회원사, UNGC 활동에 관심 있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15	15' 인 사 말 - 이등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지속가능경영 최신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이등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객관연구원
14:50 - 15:20	30'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이상원 부산대학교 교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 소위 위원장
15:20 - 15:40	20' 휴 식
15:40 - 16:30	50' 부산·울산 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 권오현 한국남부발전 차장/ 변호사 - 조정희 기술보증기금 부부장
16:30 - 17:00	30' UNGC 한국협회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 임예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17:00 - 17: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문 의: 임예희 과장 02-749-2150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5. <대구·경북>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대구·경북 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비재무적 정보공시 기준강화, 사회적임투자(ESG)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포단에 있어 입찰제출, 윤리경영, 친환경 경영 협력 근로자 삶의 질개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더욱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적책임(경영·회신) 동향 및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협력 기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대구·경북 소재의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기존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주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DGB금융지주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14:00 - 17:30

장소: DGB대구은행 제2본점 대회의실

대상: 회원사 UNGC 활동에 관심 있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15	15' 인 사 말 - 박성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홍석준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 객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14:50 - 15:20	30'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 / 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 소위 위원장
15:20 - 15:40	20' 휴 식
15:40 - 16:30	50' 대구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 김희락 DGB금융지주 부소장 - 심승기 한국가스공사 부장
16:30 - 17:00	30' UNGC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17:00 - 17: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신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문의: 임애화 과장 02-749-2150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공동주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후원: DGB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6.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3/29), <교통·물류·운송>(4/12) 간담회 결과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3 월 29 일(금)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편과 4 월 12 일(금) <교통·물류·운송> 편을 각각 발표하고,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 SDGs 목표별 이행 방안 및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3 월 29 일에는 금융 부문의 기업 실무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동 간담회는 환영사,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편> 발표, 참여 기업/기관 SDGs 활동 공유 및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교보생명,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HSBC 코리아, Who's Good, UNEP FI 코리아, WWF 코리아 등 금융계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협회에서 2018 년부터 발간 중인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시리즈'는 UNGC 글로벌 회원사들의 SDGs 현황과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개선과 SDGs 전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SDGs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원 실무진이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성 이슈를 논의하는 한국협회 실무그룹(SDGs/인권/반부패)을 올해부터 진행하여 회원사 간 네트워크 및 동료 학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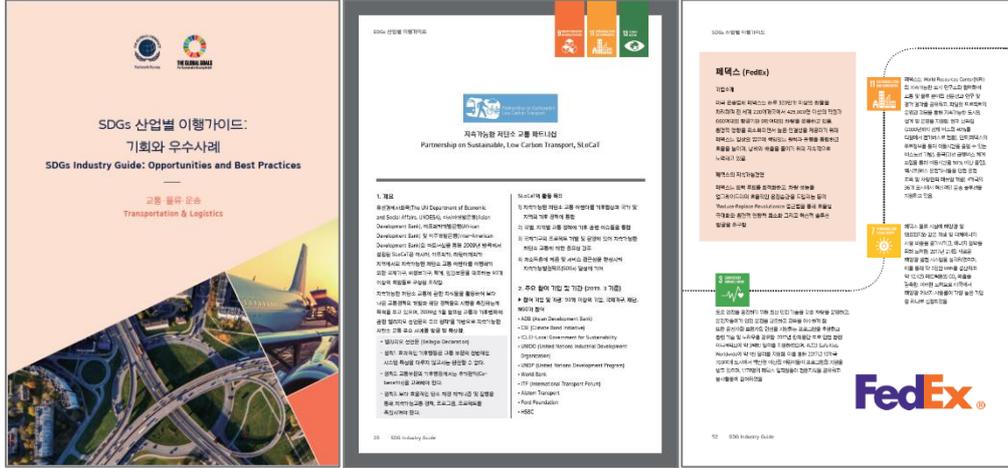


이어 광글 선임연구원의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SDGs 소개'와 소완 연구원의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은행, 보험사/재보험사, 투자사, 연기금, 증권거래소 등 각 금융경제 주체들이 SDGs 이행 시 얻을 수 있는 공유가치 기회를 설명하고, 금융산업의 주요 원칙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보 공개와 사회책임투자(SRI) 확대 동향을 설명하며, UNGC 가 공동 발족한 책임투자원칙(PRI)과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스탠다드차타드, 스위스 리, 마스터카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등 해외 기업·기관의 SDG 목표별이행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참여 기업들의 SDGs 이행활동 공유 시간에는 금융업계의 지속가능성 현안과 SDGs 이행을 위한 금융업계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실무자들은 자사의 사업과 연계된 SDGs 활동과 더불어 실제 SDGs 목표 이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실무자들은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성과 지표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SDGs 이슈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AI 를 활용한 ESG 평가를 개발, 여성 및 청년기업 대상 금융보증,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테스크포스(TCFD) 권고안의 국내 도입, SDGs Reporting 등 다양한 이슈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UNGC 에서 발간된, 기업의 SDGs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업 SDGs 공시를 위한 지침서(Integr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국문본 런칭을 비롯해, WWF 코리아, UNEP FI, PRI, 국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회원사들의 SDGs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4월 12일(금) 교통 및 물류, 운송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간담회에는 고려종합국제운송, 교보생명,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CJ 대한통운, DHL 코리아, DNV-GL, WWF 코리아 등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 및 지속가능 발전위원회(BSDC)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며 “교통 및 물류, 운송산업과 같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둔 산업은 SDGs를 달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분야”임을 설명하며, 관련 산업 내 기업들이 미래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유용한 정보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SDGs/기업과인권/반부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 객글 선임연구원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소개하고, 새롭게 발간한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교통·물류·운송>의 핵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운송산업은 사람과 상품, 자재의 효율적인 이동을 통해 시장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 효율성과 이동수단의 안전 및 보안을 향상시키고, 교통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SDGs 이행 노력을 통해 산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해운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 파트너십' 등 관련 산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및 협력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많은 선도기업들이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기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SDGs 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솔루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며, Airbus, Canadian National Railways, DHL, FedEx, Maersk, Toyota 등 해외 기업의 SDGs 목표별 이행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 기업들과 산업 내 지속가능성 현안과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실무자들은 자사의 SDGs 활동을 공유하고, 기업 내 CSR 의 내재화와 SDGs 이행에 있어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여성역량강화, 공급망 관리 등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이 교통, 물류 및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참석 기업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최근 블랙락은 ESG 공시 핵심 구성요소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준수여부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 및 일본 연기금 등이 여성 임직원 비율과 다양성 정책을 기업의 투자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책임투자 동향을 설명하고, UNGC 와 UN Women 이 함께 개발한 툴인 'WEPS 성 격차 분석 툴 (Gender Gap Analysis Tool)'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국내 5 대 발전사 및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며,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2018년부터 <식음료·소비재>, <제조업>, <헬스케어·생명과학>, <에너지·천연자원·화학>, <금융>, <교통·물류·운송> 6개 산업군에 대한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를 연구·발간하고, 관련 산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SDGs 관련 다양한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및 정보교환 자리를 마련해 회원사들의 SDGs 연계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7.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Youth Forum 2019' 참관기 (3/16-17)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가 주최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유스포럼(GCNS Youth Forum 2019)'이 지난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Empowering Youth: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싱가포르의 NTUC(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빌딩 Stephen Riady Auditorium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아세안(ASEAN) 및 한중일 청년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사와 패널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3 회차를 맞이한 이 포럼에는 할리마야콥(HalimahYacob) 싱가포르 대통령과 에이미 코르(Amy Khor)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업과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출신의 다양한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들을 포함해 한국, 중국 등 총 12 개국에서 온 350 여명의 청년 대표들은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들과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본 포럼에 두 명의 한국 청년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패널 대담과 분과 세션 등에 참여한 한국 대표들은 SDGs 를 위한 노력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우수 사례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타 국가의 청년 대표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수 사례들을 전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ASEAN 및 동북아 지역의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들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노력과 SDGs 이행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공유 바로가기\]](#)

본부소식

1.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다 – SDGs를 위한 재정적 기회

본 콘텐츠는 2019년 4월 2일, GreenBiz에 게재된 리세킹고(Lise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기고입니다.

2030 의제 4년,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규모와 속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심지어 실질적으로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을 예로 들어봅시다. 현재 성 평등을 달성하기까지 202년 정도가 걸린다는 보고가 있으며 성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상황은 잃어버린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성, 그들의 가족, 현지 지역사회, 경제 및 세계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 역량을 강화한다면 202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28조 달러의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매년 대략 5조에서 7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현재 연간 2.5조에서 3조 달러 가량의 재정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그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종종 개발원조와 혼동되고는 합니다. 2017년, 정부의 '원조' 기관들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지원액은 총 1,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본 펀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을 이겨내고, 기아를 예방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속가능발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이와 같은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작년 전세계 GDP 는 75 조 달러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만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킨다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가용 자산의 1%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할 수 있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재정적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경제 및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지구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00 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통화가치를 부과하여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하고, 투자 결정 및 사업 운영 요건 시에 이를 고려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경제 기회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잘 해결한다면 2030 년까지 신흥시장에서 23 조 달러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좋은 사업을 의미합니다. 많은 보고서들이 사람 및 지구에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내며 고수익을 거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기업의 경제 가치는 이제 투자자들과 자산관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락(BlackRock)은 지난해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s)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블랙락은 ESG 공시 핵심 구성요소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지수펀드(ETF) 내발행자의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10 대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블랙락, BNY Mellon 및 기타 자산관리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들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주류화하고 투자 부문에 내·외부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기업들은 ESG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행동촉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여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행동 플랫폼의 금융 혁신을 통해, 우리는 기업들과 다음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1. 부채증가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을 모색합니다.

1,730 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 시장이 출현하면서 워터본드(Water Bond) 및 소셜본드(Social Bond)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채권 혁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QBE 보험 성평등 채권(2017년 출시)이 있습니다.

2. 기업 연금 펀드 투자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렌즈(SDG-lens)'를 적용합니다

기업들은 기업연금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연금 중 상당수는 ESG 전략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접근방식을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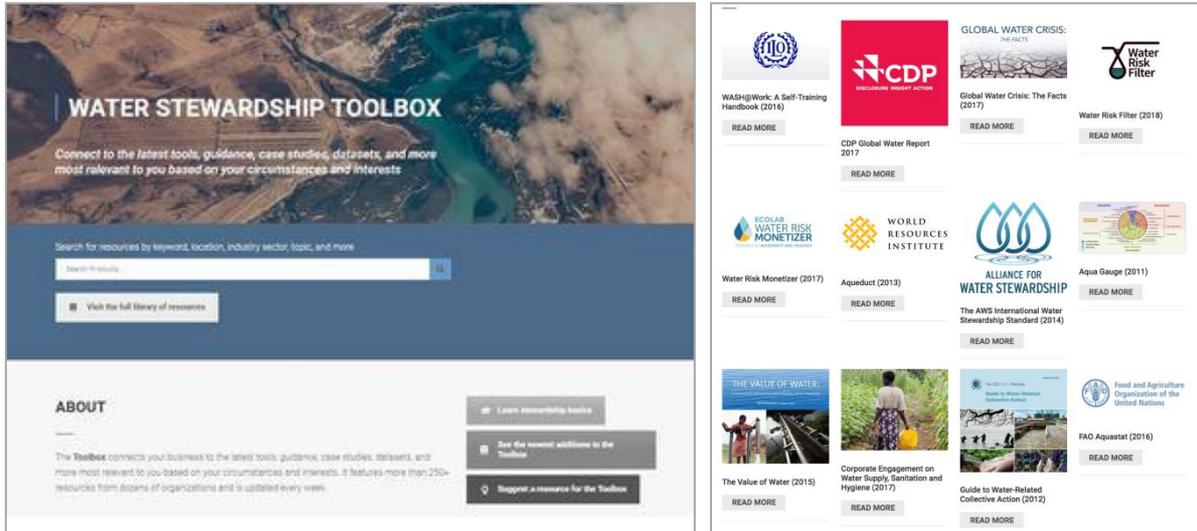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긍정적 사회·환경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본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국제흐름은 총 1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새롭고 더 발전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제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하면서 재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신규 웹사이트 소개

■ 수자원 스튜어드십툴박스(Water Stewardship Toolbox)



수자원 스튜어드십툴박스 웹사이트

수자원 스튜어드십(water stewardship)은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수자원을 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튜어드십은 기업뿐 아니라 수자원을 이용하는 농업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수자원 관련 이슈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수자원 스튜어드십의 이행을 통해 기업은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는 수자원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더 나은 수자원 활용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런칭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수자원 스튜어드십툴박스(Water Stewardship Toolbox)는 UNGC 이슈 플랫폼 '수자원 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가 개발한 웹사이트로 기업의 수자원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최신 툴, 가이드라인, 사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현재본 웹사이트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경제포럼(WEF) 등 250 여곳이 넘는 국제기구, 글로벌 이니셔티브·연구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How business leadership can advance Goal 11 o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 중심지인 도시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시화는 그리드 연결된 에너지(grid-connected energy)와 물, 그리고 위생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도시화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의 도시들은 심각한 수준의 대기 오염을 겪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여러 도시들도 인프라 제공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급속한 슬럼화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urban sprawl)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확장의 대부분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기후 변화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제들로 인해, 세계의 도시들을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업은 도시의 발전과 생활, 도시 인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목표인 '양질의 주택과 운송, 녹지와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이행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두 기업들은 회복 탄력적인 건물, 운송, 녹지 공간 및 공공서비스(전기, 물, 폐기물 등의 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11번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한 보호와 투자를 위해 기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장과 시장,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거쳐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의 사회·환경적 영향이 증대될수록 기업들에게는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의 연결성, 회복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킬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해 협력하려면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오락 등 다방면에 걸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향후 10 년간 도시 인프라에 78 조 달러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 금액은 민관협력과 같은 민간 부문의 해결책을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그리고 교통 연결성으로 인한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의 혜택을 가져옵니다.



BUSINESS ACTION 1

회복 탄력적인 건물, 운송, 녹지 공간 및 공익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합니다.

기업은 도시 전역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유형자산을 개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도시 프로젝트가 자연 유산 및 문화 유산 등의 환경적·사회적 자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선두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부문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회복 탄력적인 기반시설과 건물, 그리고 자재를 개발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이동성과 녹지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자원 사용과 오염,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명을 다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모든 지역 및 사회경제적 계층에 걸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혁신적 해법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시 계획과 기타 도시 지역의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필요 분야와 기회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선도적 기업들은 이 지역 필요에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 ▶ 스포츠 팀 A 는 경기장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에게 녹지 공간 및 오락 용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용도 경기장을 계획합니다.

- 인프라 기업 B 는 폐기물 관리 전략이 철거,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송, 그리고 최종 처리 등의 전 과정을 포괄하도록 합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건축된 시설의 철거 과정에 발생할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농업 기업 C 는 지역 소산의 싱싱한 채소를 도시에 일년 내내 제공하기 위해 폐루프(closed-loop)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는 혁신적 수직 농업 제품을 개발합니다.
- 금융 기관 D 는 도시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 정부와의 파트너십 하에 그린본드를 구축하고 발족시킵니다.



BUSINESS ACTION 2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투자합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은 지역 주민에게는 생계 수단, 방문객에게는 가치 있는 학습과 여가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업은 최소한의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도적인 기업은 그들의 가진 영향력, 전문 지식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문화유산과 연계하고 자연을 보존 및 개선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 박물관 지원, 기업 및 공급망 운영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운송 인프라 구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디자인 설계 및 공급 업체 역량 구축을 포함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자연과 문화 유산을 고려하여 정책과 관행을 구현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A 는 자연 생태계와 현존하는 서식지, 고대 토지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자연을 중심에 둔 비즈니스 공원을 설계 및 관리합니다.

우수사례

- 아웃도어 회사 B 는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보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 호텔 C 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근처의 폐수 배출을 근절하고 대기 오염을 없애기 위해 공급망 전체 사업을 관리합니다.



BUSINESS ACTION 3

일터, 시장 및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은 교육, 주택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아예 접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기업 자체 및 공급망 내 직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설계해 사업 운영 지역 주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업장, 시장 및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제공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모든 이해 관계자와 상의하여 정부 및 기타 기관들의 기존 이니셔티브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수사례

- 보험 회사 A 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경찰서, 병원, 은행, 치안 관련 기관 및 직업 훈련 기관 등에 연결하는 앱을 운영합니다. 이 앱은 여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내 성 평등 촉진을 목표로합니다.
- 국영 통신회사 B 는 유니세프 (UNICEF) 및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휴대 전화를 통해 출생 정보를 수집하는 자동 등록 시스템과 병원에서 법적 신원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신원은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착취 및 폭력에서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구직 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드론을 이용한 해충 예방

에어로보틱스(Aerobotics) 앱은 인공위성과 드론을 통해 농작물 재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알려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장 관리인에게 알려줍니다.

에어로보틱스 앱은 농장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길게는 하루에서 짧게는 20 분까지 단축하여 작물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줄여줍니다. 농장 관리인은 인공위성이나 드론으로 찍은 이미지를 통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물의 병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주파 사진 기법을 통해 드론 또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이미지가 수집되면 농장 관리인은 기계가 학습을 통해 알려준 문제가 발생한 특정 구역에서 병충해 발생 위치를 찾아내어 농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농장 관리인은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 사진을 찍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로보틱스의 기술은 현재 전 세계 11 개국 수백 개의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마카다미아 너트 농장의 40%와 감귤 농장의 20%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5,000 헥타르 크기의 농장과 나무 1,300 만 그루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Why you should care

수천만 헥타르가 넘는 농장의 병충해 발생 여부를 수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약 100 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난 농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농작법이 필요합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기아 종식

여전히 약 8 억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에어로보틱스 앱은 취약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농업 부문을 개발시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3분의 1이 버려지며, 이 폐기물의 일부는 해충 감염과 같이 수확 전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농민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보기\]](#)

3. [Global Goals in Action] 힐튼(Hilton)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힐튼(Hilton)의 글로벌 기업지속가능성팀 선임디렉터, 다니엘라 포스터(Daniela Foster)입니다. 내년이면 100 주년을 맞는 힐튼은 지속가능한 여행과 관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사명을 두고 있습니다. 힐튼의 창업자인 콘라드 힐튼(Conrad Hilton)은 여행과 관광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기업의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하는 10대 원칙은 전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고 상호연결된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힐튼에게 있어 모두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영향과 소셜 임팩트를 남기는 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환경 발자국을 절반으로 하고 소셜임팩트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린다는 힐튼의 목표는 SDGs 와 모두 연계됩니다. 힐튼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기업은 2030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중요한 중요한 주체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과, 정부, NGO 들을 한 곳에 모으는 놀라운 플랫폼일 뿐 아니라 야심 있는 기업들이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연구 관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연구자료와 데이터들은 기업의 전략을 17 가지 SDGs 목표에 연계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주며, 야심 있는 기업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2030년 세계가 더 지속가능하길 바라고 또 여행이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계속 발견의 원천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Goal 9, 10,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H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도적 참여, 스마트 시티 조성·확산 등을 통해 SDGs의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LH는 2027년까지 주거 안정 지원 가구 340만 및 도시·경제기반 조성 245km² 등의 전사적 경영 목표를 세우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 국토 가치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LH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의 수혜 대상에 청년을 강화하여 다세대 세어형 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확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공급제도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함을 인지하여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42 개소 마이홈센터를 통하여 지역 및 특정 계층의 주거수요를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층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주거생활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플랫폼 서비스 제공 단계를 넘어 향후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현재는 육아돌봄 등 직접공유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 추진중입니다.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수요가 대규모 제조업 위주에서 중·소규모 첨단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혁신형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기존의 평면적 산업단지 구성을 탈피하여 기업생애주기별로 공공지원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창업에서 성장 및 재투자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는 혁신적 산업단지로서, 창업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와 창업공간에서 배출된 성장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센터 등이 조성되어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거점도시로 확산시켜 경제 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LH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물리적 재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맞춤형 재생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결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등 시범사업 68개 중 32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녀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독거 노인의 고독사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계량기 사용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케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 리사이클링 및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 생활 편의 및 쾌적한 단지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9.1은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에서는 산업화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1966년에 산업발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를 발족하였습니다. 동 기구에서는 1971년부터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산업개발과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과 리마 선언(1975)을 채택하였습니다.

MDGs 달성을 향한 향후 노력을 위해 개최된 특별 행사 결과 보고(2013)에서 UNIDO는 MDGs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서 신속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UNIDO 총회에서 '리마 선언: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로 가는 길(ISID)'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선언을 이어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0.4는

재정, 임금, 사회보장 정책 도입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평등 달성 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SOC, 2012)에서는 세계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보호협약(1949), 동일임금협약(1951), 최저임금규정협약(1970)과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1962), 사회안전최저선 권고(2012)를 체결하여 국가별 임금 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 마련에 기준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장 정책의 도입을 통한 평등 달성을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11.1은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및 빈민가 환경 개선 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이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1948)에 이어, 인간정주선언(1976)은 적절한 주거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 주거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와 시골간의 간극과 도시 내에서의 간극을 줄이는 데 국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1996)에서는 충분한 사생활, 공간, 접근성, 안정성, 조명, 온도, 위생, 식수공급이 충족되는 적정 가격의 주거지가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지'라고 규정한 '해비타트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이 의제에 기반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화를 전담하는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이 2001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의제를 반영하여 적절한 주거지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LG화학, `글로벌 그린본드` 1조8천억 발행 성공

LG화학, `글로벌 그린본드` 1조8천억 발행 성공

국내기업 그린본드 역대 최대
모집액 7배 12조원 주문물려
전기차 등 친환경분야 투자

강두순.정석환 기자 | 입력 : 2019.04.09 17:53:50 수정 : 2019.04.10 00:02:23

LG화학이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LG화학은 15억6000만달러(약 1조7800억원) 규모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그린본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화학기업 중 최초 발행이다. LG화학은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일반채권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높이게 됐다.

정호영 LG화학 사장은 "글로벌 그린본드의 성공적인 발행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글로벌 그린본드는 달러(USD)와 유로(EURO)로 발행된다. 그린본드는 `5년6개월 만기 5억달러` `10년 만기 5억달러` `4년 만기 5억유로` 등 총 3개 채권으로 구성됐다.

금리 역시 최초 제시된 금리보다 0.275%포인트에서 최대 0.35%포인트 낮아졌다.

투자금융(IB)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이 이 정도로 금리를 낮춘 것은 LG화학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리는 고정금리며 5년6개월 만기 채권은 미국 5년물 국제금리 2.329%에 0.95%포인트를 더한 3.279%로 발행됐다. 10년 만기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2.520%에 1.175%포인트를 더한 3.695%의 금리로 발행됐고 유로 4년 만기 채권은 유럽 4년물 미드스왑금리(Mid-swap Rate) -0.051%에 0.65%포인트를 더한 0.599%의 금리로 발행됐다.

LG화학 측은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한국 채권 중 역대 최대 주문 물량인 총 105억달러(59억달러, 41억유로) 규모의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그린본드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LG화학 그린본드 발행 개요

규모	약 1조7,800억원
발행	달러 및 유로
구성	4년 만기 약 6,433억원 5.5년 및 10년 만기 각각 약 5,712억원
금리	0.599% (4년 만기 6,433억원) 3.279% (5.5년 만기 5,712억원) 3.695% (10년 만기 5,712억원)
용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을 위한 투자 자금
비고	최초 제시 금리 대비 0.275~0.35%P 낮아진 금리

- LG 화학이 15 억 6000 만달러(약 1 조 7800 억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9 일 밝힘.
- 이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그린본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화학기업 중 최초 발행임.
- LG 화학은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일반채권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높이게 되었다고 밝힘.
- 정호영 LG 화학 사장은 "글로벌 그린본드의 성공적인 발행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함.

[매일경제](#)

2. 포스코 현대제철, '미세먼지 주범' 오명 벗기 위해 대규모 투자

비즈니스

포스코 현대제철, '미세먼지 주범' 오명 벗기 위해 대규모 투자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 입력 : 2019-04-07 06:30:00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포스코는 1조 원, 현대제철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철강회사들을 향한 눈초리가 뜨거워졌다.

환경부가 전국 6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지목됐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전국 배출량의 11.79%인 2만 3291톤의 오염물질을 내뿜었다. 그 전년보다 배출량이 6.6% 증가하면서 남동발전 삼천포본부를 제쳤다.

-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포스코는 1 조 원, 현대제철은 5 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함.
- 환경부가 전국 626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8 년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지목됨.
- 포스코 역시 광양제철소의 배출량이 1 만 9668 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 만 7341 톤으로 각각 3 위와 4 위를 차지함.
- 현대제철은 2021 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비산먼지 환경 개선에 모두 5300 억 원을 투자함.
- 포스코 역시 3 년 동안 친환경설비를 구축하는 데 1 조 700 억 원을 쓰기로 함.

[비즈니스포스트](#)

3. 남부발전, 중소기업과 양방향 소통으로 동반성장 구현



남부발전, 중소기업과 양방향소통으로 동반성장 구현

기사입력 2019.04.06 19:27:04 | 최종수정 2019.04.06 19:27:04 | 권세진 기자 | cj@ekn.kr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남부발전(대표 신정식)이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해 올해 동반성장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해 올해 동반성장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함.
- 남부발전은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역량강화, 벤처창업 등 4 대 분야별 지원사업을 소개해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큰 관심을 받았음.
- 아울러 남중소기업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해 온라인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에너지경제](#)

CSR 뉴스

1. (사회책임)"성평등이 경쟁력이다"...'여성역량강화원칙' 도입 서둘러야

(사회책임)"성평등이 경쟁력이다"...'여성역량강화원칙' 도입 서둘러야

한국, OECD 중 가장 공정한 유리천장 국가

뉴스토마토 | 입력 : 2019-04-08 06:00:00 | 수정 : 2019-04-09 09:10:22



유리천장은 개인의 노력으로 깨지지 않는다. 각 분야에서 균열을 일으킨 소수의 여성이 "유리천장을 깬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아직 이는 예외적이다. 기업의 이상적 근로자가 '돌봄 부담이 없는 남성'으로 설정된 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그들이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은 채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연일 여성 채용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지만, "남성"이 하나의 스펙처럼 여겨진다"는 개탄과 자조는 여성 취업희망자 사이에서 공공연하다.

지난달 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19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을 겨우 넘겨 회원국 평균인 60점에 턱없이 밑돌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꼴찌인 한국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터무니없이 크고, 경제활동 참여자 비율도 남성이 79%인데 비해, 여성은 고작 5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총 임원 3457명 중 여성은 153명(4.4%)에 그쳤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직자의 10%, 공기업 임원의 20%, 정부위원회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19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함. OECD 29개 회원국 중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함.
- 성별 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이 주목받고 있음.
- '평등이 기업 경쟁력이다'라는 부제를 가진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직장 내 성차별 해소부터 여성 리더 양성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하며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까지 제안함.

[뉴스토마토](#)

2. ILO 비준 압박 나선 EU... "韓, 국제사회 구성원 책임 다해야"

ILO 비준 압박 나선 EU... "韓, 국제사회 구성원 책임 다해야"

입력시간 | 2019-04-09 05:49



유럽연합(EU)측 수석대표인 말스트롬 집행위원(사진 가운데)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주한 EU 대표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EU측은 분쟁 절차로 넘어가면 국가 평판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EU측 수석대표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함.
-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EU는 오랜시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국의 노동법 개정 등 명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한국이 ILO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신뢰 측면에서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계 시민들과 소비자, 기업들은 한국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교역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이데일리](#)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4 월 2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영원무역
- 부산경제진흥원

2. COP/COE 제출회원

4 월 2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유니베라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4 월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분기 및 2/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T, LG 화학, KEB 하나은행, 한국타이어, KB 국민은행, 한화케미칼, CJ 대한통운, GS 칼텍스, GS 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롯데지주, LS 산전, 휴맥스, 영원무역, 롯데홈쇼핑, 한국거래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BGF 리테일, 케이티하이텔, (주)BGF,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카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슬로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제니컴, ATUS,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널, (주)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유니베라, 세계청소년문화재단, 한국품질재단, 국제뇌교육협회(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사)밀알심장재단, 한국자유총연맹, 컨선월드와이드한국, (사)BPW 한국연맹,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사), 어반유스아카데미, 메디피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